

# 비전성남

Vision Seongnam

November 11  
2010년 11월 · 통권 제184호

<비전성남>은 성남시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입니다.

<http://snvision.cans21.net>

발행처 성남시 | 편집처 홍보담당관실 | 주소 우462-700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전화 031-729-2075~6 | 팩스 031-729-2089

## Contents

### 3 시정포커스

전통시장 사람들(3)  
모란민속 5일장

### 7 교육·청소년

성남동  
'벨리스케치'

### 8·9 특집

어린이들의 천국  
중원어린이도서관

### 16 문화·레포트

가을산행  
청계산(2)



지역의 순수 아마추어들이 모여 1994년 창단된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지역 공연봉사로, 민간외교사절단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1월 6일(토) 오후 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릴 '한·일·대만 만돌린 판타지'를 앞두고 연습에 한창이다. <관련 기사 13면>

사진 | 홍보담당관실 최선일

축하합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  
성남시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기업·공공기관·자치단체 등 135개 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임신·출산·양육 시책 추진사례를 평가한 '제1회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성남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출산·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뱅크제 운영을 비롯해 시민과 학생 대상 55차례의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 실시, 둘째·셋째아 출산 시 보조금 지원, 취학 전 셋째이상 자녀에 양육수당 지급 등의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729-2833

제37회 모범시민상 수상자 6명



소수일



김순례



정영숙



최문조



심문보



김동철

시정 발전에 공헌해 온 모범시민상 수상자로 소수일(지역경제부문·버텍(주) 대표이사), 김순례(지역안정부문·수정구 어머니자율방범대연합회장), 정영숙(여성복지부문·나눔의이웃 회장), 최문조(사회봉사부문·태평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심문보(효행선행부문·환경지킴이), 김동철(보건환경부문·성남시민자연환경 모니터) 씨가 선정됐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29-2282

강정일당상에 수필가 김영의 여사



성남문화원은 제13회 강정일당상 수상자로 지난 42년간 교육자로 후진을 양성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로 헌신한 수필가 김영의(81) 여사를 선정했다. 강정일당상은 성남시 향토유적 제호로 지정된 후 한국 문화인물로 추앙받는 조선 후기 여류문사 강정일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성남문화원 756-1082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성남시민의날 맞아 '희망의 새출발' 다짐



시 승격 37주년 성남시민의날 기념식이 내외빈과 관계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8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시민상·문화상·경기도민상 수상과 함께 축하 자리가 마련됐고, 지난해와는 달리 식전·식후 행사는 유명연예인 대신 시립예술단과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등 시민이 주인이 돼 무대를 장식, 행사 분위기를 달궜다. 기념식 후 성남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재래시장인 성호시장을 직접 방문, 일일이 골목을 누비며 상인들을 만나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날 기쁨을 함께 누렸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바로 민선5기의 시정목표다. 모든 사람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모든 사람이 희망과 미래를 공유하며, 그럼으로써 성남

의 주인인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민 중심'의 시정철학에 따라 시청사 시민환원, 시장실 개방, 시민접촉 확대, 현장행정 강화 등 시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 중심 정책을 일부 시행해 왔지만, 이번 시민의날을 계기로 새출발을 다짐하는 소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참여하는 열린행정』 『역동하는 지역경제』 『보편적인 나눔복지』 『꿈을여는 평등교육』 『감동있는 문화예술』을 5대 시정방침으로 확정했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적기업 육성, 시립의료원 추진,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노인일자리, 재가복지사업,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시민을 섬기는 '행복 나눔' 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청이 바뀌고 있어요!

시청의 명소 북카페에 이어  
체력단련실도 '시민 이용'



성남시민들은 시청 9층에 문을 연 '하늘 북 카페'에 이어 4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설치된 체력단련실이 근무시간에는 운영되지 않아 9월 27일부터 시민개방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청내 체력단련실은 329.72㎡(약 100평) 규모에 러닝머신·자전거타기 기계·아령 등 39종의 운동기구와 남녀샤워실, 락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총무과 후생복지팀 729-2202

한편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옛 시장집무실을



개조해 운영 중인 '하늘 북 카페'가 10월 1일부터 두 배 이상 공간이 확대 개방됐다. 하루 평균 300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가 높은 북카페가 최근 운영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데 이어, 같은 층의 회의실·옛 부서장실 등을 시민공간으로 꾸며 일반열람실과 담소방, 모임방으로 선보였다.

북카페는 총 887㎡ 규모로 한번에 2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모임방은 5~25명 정도의 모임장소로 예약 신청하면 무료로 2시간 동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늘북카페 729-4980~1 | 모임방 문의 729-2212

기획 · 전통시장 사람들(3)

# 국내 최대 민속시장 - 모란민속 5일장



01

‘성남시’ 하면 당신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지난 6월 24일~7월 9일 성남시가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모란민속5일장’이 59.3%로 가장 많았고 남한산성, 분당 등의 순이었다.



02

2014년경에는 성남을 대표하는 모란민속5일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현재 모란민속5일장이 서고 있는 성남동 1864번지 일원은 성남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도로로 회복되고, 장터는 인근 4747번지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03

4·9일 장날에는 세계적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카드사용으로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수유시설·탁아시설·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전국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5

상인회는 화훼, 잡곡, 의류, 잡화, 수산물, 야채, 고추, 애견, 가금류, 약재, 먹을거리, 신발, 기타 13개 부서로 나뉘어 9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15년 동안 해마다 홀몸노인들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김장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06

최정택(59·이매동) 상인회 회장은 모란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인 스스로 친절, 봉사에 주력하며 청결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말장은 10만 명, 평일장은 5만 명이 방문하는 장터에는 전통시장 통합 BIDI자연을 적용한, 시가 제공한 앞치마와 모자·명찰을 착용한 상인들이 분주하게 고객을 맞고 있었다.

모란장에 들어서면 고객들이 구입하는 물품 1위에 오른 화훼부(2)가 있고 인정 많은 김풍조(66) 씨를 만나게 된다. 고향 목포를 뒤로하고 1970년에 성남으로 이사와 모란장이 들어서면서 화훼업을

시작한 그는 “모란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매우 재미가 있어서 이때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을 접한다는 것이 정말 좋고, 또 요즘같이 큰 쇼핑몰에서는 재래시장만의 정취를 느낄 수 없어요. 여기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잖아요.” 늘 싱글 병글 웃는 주인의 모습에 나무들도 생기가 넘쳐 마구 팔려 나간다. “콩고, 마리안느, 밤의 향기 제왕이라는 뜻의 아래향을 권해요. 공기 정화나 음이온 생성에 좋아요.” 겨울에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나무라고 권한다.

햇잡쌀이 가을햇살과 만나 참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른다. 20년째 잡곡류(3) 장사를 하는 김현순(56·성남동) 씨 가게에는 오랜만에 놀러온 단골들이 주인과 얘기하고파 기다리고 있지만 장사가 바빠 대화를 나눌 틈이 없다. 장이 쉬는 날에는 강원도 횡성, 홍천, 광천, 예산 등 좋은 잡곡이 나는 곳을 찾아 전국을 다닌다. 둘째가 서울대에 합격해서 상인회에서 현수막도 붙였다고 한다. “단골 고객들이 다시 찾아주고 애들이 잘 크니까 장사할 힘이 나요.” 상인들의 힘의 원천은 가족과 단골들이었다.

생선가게(4) 중 제일 활성화된 가게를 운영하는 이재형(47·금광2동) 씨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칼놀림이 예사롭지 않은 그도 처음부터 장사를 한 건 아니었다. 모란장을 지키던 아버지가 9년 전 알아누운 후부터 자신이 도맡아하고 있다. 어머니, 동생 가족이 총출동해 손발이 착착 맞다. 손님이 끊이지 않는 비결을 살짝 물었더니 “오로지 열심히 하고 친절하면 됩니다”라는 답이 들려온다. 사람들도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의 실천력이 감동을 준다.

“강원도 정선 태양초예요. 요거는 경상도...” 이민상(53·상적동) 씨가 포대마다 가득한 고추(5)들을 보며 산지를 설

명하는데 “지난 장날 외상값 갚으러 왔어요” 하며 7년째 단골이라는 손님 소순녀(상적동) 씨가 왔다. 외상장부는 없다. 하지만 상인은 손님을 믿고, 손님은 외상을 마다않는 주인이 고마워 단골이 돼 돌아온다.

말티즈·요크셔테리어·미니핀·푸들 종이 제일 잘 나가는 애견부(6). 김희환(55·수진동) 씨는 “애견을 키울 때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양하는 가정집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새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싸다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싸는 놈들만 골라 장에 가져오고 그날 가져온 건 그날 다 팔려고 한다. 종에 따라 6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다.

이북에서 피난 와서 20년간 모란장을 지키며 약재(7)를 팔고 있는 김경석(69·상대원동) 씨. 육지에 있는 장은 물론이고 울릉도를 비롯해 장이 선다는 섬도 다 갔다는 그도 모란장이 제일이라고 말한다. 30년째 강정 만드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여기고 사는 즉석강정집(8), 설탕을 사용하지 않아 지나치게 달거나 딱딱하지 않다. 자식들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게 좋다는 인심 좋은 수현이네 국수집(9)...

모란장을 찾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통5일장의 정취가 느껴져서’가 59%로 1위였고 ‘상품이 다양해서’가 50%로 2위였다. 재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98.2%의 고객들이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어릴 적 추억이 자꾸 생각나고 우리의 마음이 고향으로 달려간다면 모란장에 가보자. 사람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가 어른들에게는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줄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사람냄새 나는 따뜻한 세상을 바라보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구현주 기자 sunlin-p@hanmail.net



09

08

04

07



알아두면 편해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2010.11.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를 대상으로 인터넷조사(10.22~31)에 이어 11월 1~15일(15일간) 본조사가 실시된다. 본 조사는 인터넷조사 시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 한해 조사원이 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총 50개 항목이다.

비전추진단 통계팀 729-2272

성남시 무역전문실무교육

시 소재 중소기업체 임직원에게 오는 11월 1~24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무역실무 및 FTA를 내용으로 교육한다. 수강료는 없으며, 10월 27일까지 팩스(729-2639)나 우편으로 신청받는다.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 729-2644

녹색생활 실천 및 기후변화 대응 교육

10월 26일(화) 오후 2시 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연다. 저탄소 사회와 소비자의 상호작용, 유용미생물(EM) 활용교육 등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함께 한 가정 탄소 1톤 줄이기 실천다짐 서명, 탄소 포인트제 참가운동 등 녹색생활 실천 결의가 진행된다.

가족여성과 여성생활팀 729-2922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시행

중개업사무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이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고 부동산거래 상담(방문) 및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책임감 있는 중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부동산 상담 및 계약체결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729-3351

조상의 땅 찾아보세요!

자신도 모르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 시청 토지정보과나 가까운 구청 시민과에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729-3365

구청 시민과 토지정보팀 | 수정구 729-5101

중원구 729-6102, 분당구 729-7103

판교지구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설치장소 : 판교동 · 삼평동 · 백현동 · 운중동 주민센터 4개소
- 발급증명 : 주민등록등 · 초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제적등 · 초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축물대장, 지방세과세증명, 병적증명 등

분당구 시민과 민원팀 729-7082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 대상 : 만65세 이상(연중)
- 접수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민원24

www.minwon.go.kr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 열람 · 신청 · 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시 수수료 없음.

생활 속 재난사고 안전지킴이

민방위안전체험센터 시민 속에 '우뚝'



올 여름 유난히 잦았던 폭우, 태풍, 지난 9월 부산의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 환경문제나 여러 이유로 재난재해가 늘어나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겨울로 접어들면서 가스 · 전기 화재 발생 우려가 늘어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성남시 민방위안전체험센터(수정구 단대동 민방위교육장 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재난 · 재해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평상시 안전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말까지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반기 생활안전체험교육을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며 토 · 일요일, 공휴일은 쉽다. 체험교육은 전화 · 방문 신청할 수 있다. (1회 인원 20명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 729-3571~5

민방위안전체험센터 729-3578

체험 공간 6곳은?

- 종합홍보관
- 화재진압체험장
- 심폐소생술체험장
- 완강기탈출체험장
- 화생방체험장
- 열 · 연기 피난체험장



시사용어 따라잡기 GMO란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우리말로 '유전자 재조합 생물체' 라고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농산물), 유전자재조합동물(GMO동물), 유전자재조합미생물

(GMO미생물)로 분류된다. 현재 개발된 GMO의 대부분이 식물이기 때문에 GMO는 통상 유전자재조합농산물(GMO농산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G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 어떤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켜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 일부를 변형시켜 만든 것이다. GMO는 정부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만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농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유전자재조합식품(GMO식품)이라고 한다.

200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은 7개 농산물(콩 · 옥수수 · 면화 · 카놀라 · 알팔파 · 사탕무 · 감자) 54개 품목이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콩과 옥수수라고 할 수 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해요!

해설과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 발레 판타지

제4회 성남시 육아지원 프로그램

- 언 제 : 11월 5일(금) 오후 7~8시
- 어디서 : 성남시민회관 대강당
- 발레단 : 서울 와이즈 발레 씨어터
- 접 수 : 10.25~29 선착순 인터넷 접수
- 대 상 : 시 거주 7세 이하 영유아를 둔 가정(선착순 200가정). 무료

성남시보육정보센터 721-1640

www.sneducare.or.kr

「비전성남」,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비전성남」 11월호부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아이폰 · 안드로이드폰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비전성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비전성남을 구독하실 수 있으며, 관심 있는 기사는 지인들에게 이메일과 트위터로 즉시 보내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이폰 - '앱스토어' 에서 「비전성남」 검색
-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마켓' 에서 「비전성남」 검색

홍보담당관실 미디어홍보팀 729-2062

2010 경기도 자활사업 우수 공동체상 (주)푸른우리

## 저소득층에 희망 주는 착한 기업

일자리도 만들고 이윤도 나누고



2008년 공동체 출범 당시. 왼쪽이 박영래 운영이사



경기도내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열린 '2010 자활사업 경기도 평가'에서 성남시 자활공동체 (주)푸른우리가 우수 공동체상을 받았다.

(주)푸른우리(대표 박정선)는 종합청소대행 기업으로 건물의 일상관리, 바닥관리, 준공청소, 소독·방역, 집안의 집먼지 제거 등 우리 생활 주변 곳곳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성남시내 30개 초·중·고교의 청소와 저소득층 청소사업을 위탁받아 일하는 등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08년 7명이 창업해 2009년 주식회사로 발전하면서 12월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박영래 운영이사는 “저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게 됐다”며 청소 사업을 시작하던 때를 떠올렸다. “2005년 용산 철도청 철량리폼작업(기차 스티커를 떼어내는 일)을 하며 다진 팀워크로 7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철량리폼 작업은 힘든 일이었지만 그 일을 하며 어려운 일도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는 “청소사업은 보통 1년 단위

로 계약해서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재계약률이 높고, 일반 가정 청소도 입소문을 통해 문의가 많이 온다”며 “이번 수상도 성실한 직원들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푸른우리에는 현재 24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모두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직원은 지역자활센터,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뽑고 있는데, 이번에 중원어린이도서관 청소사업을 맡으면서 6명의 직원을 새로 뽑는 등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푸른우리는 이윤의 일부를 공익사업에 쓰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소 봉사로 자신들의 능력을 기부하기도 한다. 10월 말경에 상대동동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예정이며 청소용품 도매업도 준비 중에 있다. 사무실을 새 단장하면, 그동안 교육장이 따로 없어 청소현장에서 실시되던 교육을 교육장에서 사전에 실시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한다.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고 일자리가 더 많아지는 것이 (주)푸른우리의 바람이다. 자활사업에 성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고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푸른우리에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발견한다.

(주)푸른우리 736-3502~3

박인경 기자 ikpark9420@hanmail.net

### 특독! 법률상담

## 호의동승



**Q** A와 B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직장동료로 A의 자가용 자동차를 B가 서로의 협의에 따라 같이 타고 출근한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B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B에게 A의 자동차에 무상으로 호의동승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 중 30%를 감액 지급하겠다고 한다.

**A** 호의동승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이러한 목적으로 그 제공을 받은 것을 말한다. 호의동승 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행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으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2917 판결).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새벽에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옆에서 잠을 잔다든가 과속하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을 경우 등의 배상액 감경사유가 있지 않는 한 B가 A의 차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안신재 | 성남시 예산법무과 · 법학 박사

## 취업이 희망!

함께 찾아요, 함께 잡(job)아요, 일자리!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는 10월 29일(금) 오후 2~5시 태평 3동 주민센터 4층 소회의실에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실시한다. 모든 상담 및 지원은 무료다.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748-9959

###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 교육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을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만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교육(9차 11.11~19, 10차 12.1~9)과, 노인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가사간병도우미 등의 유사경력자 교육(3차 11.20, 26, 27)을 진행키로 하고 교육생을 모집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인 및 교육 신청은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기관인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748-3503), 분당장애인자립생활센터(706-5019), 해피유자립생활센터(723-8253)에 하면 된다. 교육비는 신규자 5만 원, 유사경력자 2만5천 원이다. 교육 후 장애인활동보조인은 가사, 신변, 외출 및 이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는 시간당 약 6천 원(제공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이다.

시청 노인장애인과 729-2884

### 경원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나노·바이오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수시 모집한다. 보육실은 44.3㎡ 1개실, 86㎡ 2개실, 88.9㎡ 1개실은 11월 중, 41.7㎡ 1개실은 12월 중에 입주가능하다.

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행정실 750-5735

## 성남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개회

-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

○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오는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해 ▲성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회기중에 심사한 주요안건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박창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심의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성남시 식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 이번 173회 임시회는 13일 오전 11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4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를 가진 후 22일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 한편 장대훈 의장은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운영상황을 지역방송인 아름방송의 취재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 전역에 생중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의회상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며 최종 합의까지는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외 공개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발 사업이 정상화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시의회 의정연수, 스스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 등 전문지식 습득 -

성남시의회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2010년 의정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제6대 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4년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방향 설정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함양과 의원 상호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사업예산의 이해와 실무”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및 실천사례” “우리나라 지방자치 2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갖는 연수로, 의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새로 등원한 초선 의원은 물론 모든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창의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배가시키고 동료 의원 상호 간 친선과 우의를 증진하는 화합의 장이 됐다.

##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 출범

- 10월 7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첫 회의 -

성남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4자 협의체가 10월 7일 공식 출범했다.

성남시의회는 7일 오후 3시에 시의회 4층 의원세미나실에서 시의회, 성남시, LH공사, 주민대표 3인 등 총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자 협의체 회의를 갖고 향후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7일 첫 회의를 가진 4자 협의체는 LH공사 측의 재개발사업 포기 검토설이 유포돼 주민 불안이 가중 되던 중 지난 8월 20일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LH본사를 방문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이어 9월 6일 4자 협의체로 재협약이 이루어진 이후 첫 번째 결실을 맺은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4자 협의체는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세부사항은 성남시와 LH공사의 팀장급 실무진 각 4명이



중원구 우수동아리경연대회 최우수상 성남동 '벨리ске치'



# 함께 춤을 추어요! 벨리댄스

5세에서 65세까지 3대가 어우러져



벵아리를 연상케 하는 노란 벨리복을 입은 어린이들이 “뿌끄뿌끄” 음악에 맞춰 귀엽게 춤을 춘다. 이어 반짝이 옷을 입은 초등학교생들이 “윤 드림” 음악에 맞추고, 이정현의 “수상한 남자”에 맞춰 30대 주부들이 리듬을 타고 나면 베이직베일팀인 어린이들과 50~60대의 주부들이 함께 어울린다. 박수가 쏟아지고 환호성이 울렸다.

지난 10월 8일 모란오거리 페스티벌이 열리는 현장에서 성남동 주민자치센터 벨리댄스팀 ‘벨리ске치’를 만났다. 성남동에 사는 이순아(35) 씨는 딸(김민채·6)을 낳고 벨리댄스를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민채도 자라면서 끼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서 1년째 함께하고 있다. 이제는 제법 예쁜 자세가 나온다고 한다. 성유정(32) 씨도 딸(오수민·성수초 2)과 함께 벨리댄스를 한다.

친구의 권유로 벨리댄스를 시작한 지 3년 됐다는 이정애(53) 씨와 시작한 지 1년쯤 됐다는 이지춘(56) 씨는 “운동 차원으로 시작한 벨리댄스가 음악과 율동을 통해 취미로 발전했다”며 “몸이 가벼워지고 식구들이 활기가 넘친다고 하는 등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삼남매를 모두 출가시킨 배경순(62) 씨는 “기타를 시작으로 요가도 함께하며 지난날 무료했던 시간이 벨리댄스 덕분에 삶의 즐거

움으로 바뀌었다”며 “벨리댄스 하는 것을 가족이 보러 올 것”이라고 자랑스러워했다.

피아니스트가 꿈인 윤은혜(성수초 4) 어린이는 벨리댄스를 시작한 지 2개월이 됐다. 특히 ‘베일’을 맡아 하는, 키가 큰 은혜는 “벨리댄스를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한다. 성남동에 사는 윤춘정(35) 씨는 남편이 적극 찬성해 4살짜리 둘째아이가 돌을 지난 뒤 다시 시작한 벨리댄스와 함께 “리키 마틴” 곡에 맞추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벌써 4년째 60여 명의 벨리댄스팀을 이끄는 강사 전혜경(39·사진 뒷줄 왼쪽) 씨는 “박연지(5) 어린이가 벨리댄스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5세에서 65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벨리댄스팀은 보기 드물 것”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하다.

“벨리댄스는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댄스를 하면 하체가 발달돼 여성의 질환 예방은 물론, 몸매도 예뻐져서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노출 등으로 쉽게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연습과 발표를 통해 가정주부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지난 9월 28일 중원구 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벨리댄스팀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연습에 임하는 모습은 감동적”이라며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성남동 강성희 동장님과 이종선 자치위원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꼭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환호하고 박수치며 함께 어울리는 동안 모란오거리에도 어둠이 내리고, 상가에서도 축제의 불을 밝혔다.

이화연 기자 maekra@hanmail.net

## 클릭! 청소년 뉴스

### ▶ 성남시 청소년 디지털사진 콘테스트

시 거주 또는 재학중인 만 14~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카메라나 핸드폰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10월 31일까지 공모한다. 주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모습’이며 최근 6개월 이내 내용의 작품을 1인 2매까지 제출할 수 있다.

성남시청소년인터넷방송국 참TV 740-5280 www.chamtv.com

### ▶ Three Go(고3) 페스티벌 시즌 2

오는 11월 22일~12월 4일 대학 수능(11.18)을 마친 관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마술과 리더십, 건강한 이성 교제 방법, 대중 앞에 당당해지기, 진로탐색 등의 전문가 초청특강과, 청소년 우수영화 상영, 국내 유명 비보이 댄스 공연 등 문화공연, 3:3농구대회 등으로 진행된다. 10월 19일(월)부터 성남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 받는다.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 750-4640

### ▶ 영어게임으로 배우는 서울 G20 정상회의

오는 11월 6일(토) 오후 2~5시 관내 초등학교 3·4학년을 위한 단기특강을 연다.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를 어린이 눈높이에서 알아본다. 영어게임을 통해 대륙별로 참여국의 수도·인구·정상(대통령) 등을 알아보고, G20 팝업북을 만드는 이벤트도 갖는다. 희망자는 10월 26~28일 홈페이지(<http://bd.snlib.net>)를 통해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분당도서관 정보봉사팀 729-4663

### ▶ 교과연계자료 <중3국어> 발간

학생의 독서정보자료 및 교사의 교수·학습자료로 활용되는 교과연계자료 <중3국어>가 발간됐다. 중3 국어교과서를 기본으로 소단원별 작품의 학습정보 및 저자정보, 학습내용과 연계된 독서정보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연계자료는 교과연계자료 발간위원으로 위촉된 현직 국어교사가 직접 선정, 교육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거나 교수·학습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경기도립성남도서관 사서과 730-3535

### ▶ 판교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 • 회원발표회 및 전시회

- 11.27(토) 오후 3~5시 공연장

#### • 신나는 놀토 ‘열린 교실’ (특강 공연 체험)

- 11.13(토) 민속떡·케익만들기, 버블공연 체험

초등 1~6년 대상, 9천~1만4천원

11.8(월)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 11.13(토) 영화상영 ‘죽은 시인의 사회’ (무료)

- 11.13(토) 세계문화유산Ⅲ(수원 화성 탐방)

초등 4~6년 대상, 1만5천원

10.26(화)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 11.27(토) 연극 공연 ‘옛날 옛날 금강산에’ (무료)

#### • 금토산사계절놀이터

- 11.13(토) 오후 1~4시(무료)

- 시 거주 초등 1~6학년 포함 가족

- 11.1(월)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판교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팀 / 청소년활동팀

070-4012-6684 / 070-4012-6671~6



# 어린이들의 천국 미리 가보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중원어린이도서관  
11월 중 금광2동에 문 열어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니?  
그래서 혹시 그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아니니?  
힘들고 지친다고 네 꿈을 포기하지 마렴.  
언젠가는 너도 네 꿈을 꼭 닮아 갈 테니까.  
- 『존아저씨의 꿈의 목록』 (작가 존 고다드) 중에서 -

출지도 텅지도 않은 살가운 계절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 공간이 새로이 문을 연다. 골목길 저편에서 달려오고 이편에서 달려 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까르르 들릴 것만 같은 그런 골목 한자락, 마음을 부비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운 사람들이 조심스레 살아 갈 것 같은 동네, 금광동에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원어린이도서관'이 둥지를 튼다. 오는 11월 중순,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이곳을 미리 둘러본다.

주소 중원구 산성대로 408번길 42(금광2동 3487번지)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부지면적 3,602.7㎡, 연면적 1만560.8㎡)

주요 시설로는 자료 열람실, 문화교실, 우주체험관 등이 있으며 유아·아동·일반·서양 원서 등 장서 2만5,145권이 현재 비치돼 있고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1층

사무실 · 꼬마책동산 · 엄마랑아가랑  
이야기마당 · 오순도순쉼터 · 놀이방



별빛이공원 / 나뭇잎교실	4층	정신대교실
꿈나무극장 / 나뭇잎교실	3층	정신대교실
어린이책동산 / 사이버마당	2층	꿈꾸는극장 / 우주교실 / 책이타이머
어린이책동산 / 사이버마당	1층	꿈꾸는극장 / 우주교실 / 책이타이머
사무실 / 꼬마책동산 / 엄마랑아가랑	1층	오순도순쉼터 / 놀이방
주요시설	1118	
주요시설	944	
주요시설	312	
주요시설	118	
주요시설	118	

1층은 0세부터 이용 가능한 유아 위주의 공간이다. 115석의 전체 운동식 영·유아 열람실과 놀이방, 모유수유실, 동화구연실, 휴게실이 마련돼 있고, 다른 쪽 면에는 벽화가 그려진 실내 정원과 체험가 능한 디지털수족관 등으로 예쁘게 꾸며진 공간이 자리한다.



박경희 기자와  
예기를 나누는  
임종일 관장 (왼쪽)



## 2층

어린이책동산  
사이버마당  
자랑한마당  
배움마당  
책이야기아랫방



초등생 위주의 공간으로 115석의 어린이열람실 등 자료열람실과 디지털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기획전시, 문예활동, 독서토론 등을 할 수 있게 꾸며져 있다. 방음장치가 된 DVD룸 6곳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무선이폰도 준비돼 있다. 한쪽엔 공기 청정기와 무인대출반납기 3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시실도 있어 아이들이 만든 도자기나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다.



도자기체험방 그리고 우주체험관과 독서토론실로 이뤄져 있다. 특히 중원어린이도서관의 특화시설인 우주체험관에는 로켓의 작동원리와 원료의 종류뿐 아니라 우주인이 머무는 우주정거장, 우주식량, 우주복, 침대 등이 전시돼 있어 우주인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천체투영실은 우주 별자리를 밤하늘 밑에 누워서 보듯이 관찰할 수 있게 꾸며져 있으며, 3D 영상설비를 갖춘 꿈나무극장에는 관람석 28석이 준비돼 있어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구울 수 있도록 전기가마시설이 갖추어진 도자기 체험실도 마련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

## 3층

꿈나무극장  
나로교실  
꿈빛는자기방  
우주교실  
책이야기위층방



오밀조밀한 시가지가 내려다 보이는 4층은 시원한 야외공원으로 양·황소·쌍둥이 등 12개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건너편으로 발길을 돌려 올라가니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을 충족시켜 줄 천체망원경 등이 선보인다. 사르르 열리는 천체 관측실 지붕 사이로 파야란 하늘이 드러나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곳에서는 야간에 망원경으로 실제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다.

돌아나오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임종일 관장을 만났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성남에서 최초라고 한다. 임 관장은 "도서관은 책이 기본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확대해 천체관측실과 우주체험실 등을 갖추게 됐다"며 "책이 중요하지만 무조건 읽으라고 하는 것보다 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중에 어린이도서관이 문을 열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지하 1층 오픈카페와 지하 1·2층에는 총 152년의 주창장을 갖추고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돕고 있다. 둘러보기를 마치며 이곳 어린이도서관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책 놀이터이기를, 그 책 속에서 무한한 세계와 미래를 향해 꿈꾸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책 방앗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보았다.

박경희 기자 pkh2234@hanmail.net

## 4층

별빛이공원  
천성대교실



오시는 길  
〈버스노선〉  
17, 17-1, 720-1, 57, 100  
마을버스 7(종합시장~상대원동)  
금광2동 주민센터 앞 하차  
중원어린이도서관 729-4363~5





## 아이들의 꿈이 '쑥쑥', 이웃과의 정이 '물씬'

하대원동 정겨운 사랑방 '자이도서관'

중원구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창고로 쓰던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자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지난 10월 16일 자이아파트 입주 3주년을 맞아 개관한 자이도서관은 단지 내 노인정 건물 1층 12평 남짓의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독서방과 공부방이 분류돼 있다. 독서방은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아기자기 꾸며졌으며, 공부방은 19개 좌석의 책상에 사물함까지 구비, 독서실처럼 꾸몄다.



###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어"... 목소리 툰 높아진 엄마

김삼희 추진위원장(48)은 "자이도서관은 입주민들의 도서기증과 입주자대표회의 도움과 뜻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6월부터 준비해 마련했다"며 "이제 이곳은 아이들에게 유익한 꿈과 희망을 키우는 도서관으로, 또 우리 이웃들의 정겨운 공간으로 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정해영(36) 씨는 "도서관이 생긴 이후, 아이가 방과 후 전화해서 '엄마 또 1004호 아줌마네 있어요?' 하고 짜증스럽게 물을 때 '아니 도서관에서 책 보고 있어' 라고 대답하게 됐다"며

"그럴 때마다 웬지 내가 제대로 된 엄마 같아서 목소리 툰이 높아진다"고 자랑한다. 작은 공간에 많은 장서를 놓을 수 있도록 책장을 이중으로 마련해 놓고 1,600여 권의 적은 도서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에게 유익한 책을 비롯해 소설·수필집·시집·철학서적까지 다양한 도서가 비치돼 있다.

### 12평 남짓, 아직은 신접살림... 책 기증해 주세요!

책 대여를 위한 회원증 발급과 도서 선정 및 관리는 11명의 운영위원이 맡고 있다. 김 추진위원장은 "아직은 신접살림이라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이 도서관이 주춧돌이 돼서 사생대

회, 구연 연극, 아파트 주민이 꾸미는 작은 음악회 등을 열어 점차적으로 문화적인 공간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지 내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는 자이도서관에는 사서 출신 주민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상주해 책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독서실은 새벽 1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 스스로 봉사하는 지킴이들과 함께 책을 보고자 하는 많은 아이들의 희망의 공간 '자이 도서관' 주민들은 이 작은 도서관 책장에 책이 가득 차게 되는 날, 아이들의 꿈도 활짝 피고 영어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 추진위원장은 "비어있는 책장을 볼 때마다 마치 내 머릿속이 비어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다"며 "그래서 도서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구상 중인데, 혹시 책을 기증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저희가 고마운 마음으로 가지러 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노력해 만들고 스스로 운영하는 이 작은 공간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네에 커다란 쉼터와 배움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경숙 기자 chung0901@hanmail.net



### 성남시립교향악단 제79회 정기연주회



♪연 제 : 11.25(목) 오후 8시  
♪어디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출 연 : 지휘 김봉, 협연 피아노 노희재  
♪프로그램 : 브람스 비극적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브람스 교향곡 3번  
♪티 켓 : 1만원

성남시립교향악단 729-4809

### 성남시립국악단 제24회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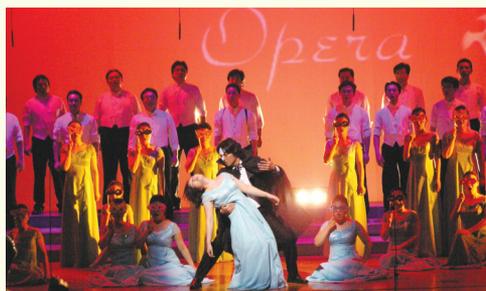
'거문고 신쾌동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공연'

♪연 제 : 11.16(화) 오후 7시 30분  
♪어디서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프로그램 : 국악관현악, 거문고 협주곡 1번, 국악관현악(초연) '추풍', 거문고병창 협주곡, 국악관현악 '옹헤야',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협주곡 등  
♪티 켓 : 전석 5천원

성남시립국악단 729-4810



### 성남시립합창단 송년특별기획 창작 뮤지컬 '불가마사우나 블루스'



♪연 제 : 12.3(금) 오후 7시 30분  
♪어디서 : 성남시청 1층 온누리관  
♪극본·연출 : 최창열(뮤지컬 '어워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피터팬' 등 유명 뮤지컬 연출자)  
♪작품 개요 : 12월 어느 토요일 저녁,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불가마사우나 찜질방에서 벌이는 노래자랑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해학을 담은 뮤지컬 드라마  
♪티 켓 : 전석 무료(초대). 자원봉사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시립합창단의 송년선물

성남시립합창단 729-4807  
장영희 기자 essay45@hanmail.net

•• 우리 동네 역사이야기 · 금토동(2)



###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의 싹 틔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세기 말이다. 외부로부터 신흥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선교사가 파견돼서 선교활동을 중심으로 종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천주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우리 민족 스스로 천주교 신앙의 싹을 틔웠다.

1779년(정조3년), 경기도 퇴촌면 천전암(현재 한국 천주교 발상지) 불교 사찰에서 권철신·권일신 형제를 비롯해 이승훈, 정약전, 정약용, 남인 학자 이벽 등이 천주교 '강학회'를 열었다. 실학파 지식인인 자 초기의 신앙인인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 편에 들어온 「천주실의」, 「칠곡」 등의 천주교 교리서를 읽게 됐고, 학문적 호기심으로 받아들여 연구되던 천주학 또는 서학(西學)을 종교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1784년, 이승훈을 북경 천주회로 파견해 프랑스의 그라몽(Grammont) 신부에게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다. 많은 교리서와 성서, 그리고 성물을 가지고 귀국한 이승훈은 이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지금의 명동 성당 부근의 명례방(이벽의 집)에서 정기적인 신앙집회를 갖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공동체가 형성됐다.

### 처참했던 천주교 박해의 흔적

천주교가 들어올 당시 유교사상이 근본이었던 조선왕조의 지배계층은 '모든 사람은 천주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고,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천주교를 용납하지 않았다. 천주님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형제·자매라는 것과 제사를 지내지 않는 천주교의 교리는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 이념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제도를 유지하던 조선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수차례의 박해를 받게 되기에 이른다.

천주교 박해는 처음부터 처참했다. 1801년의 신유박해를 비롯해 기해박해(1839), 병오박해(1846), 병인박해(1866)로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다. 그 중 남한산성 성지와 금토동 청계산 성지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

남한산성은 신유박해 때 광주 의일리(현재 의왕시)에 살던 한덕운(韓德運) 토마스가 체포돼 1801년 12월 28일(음력) 동문 밖에서 처형됐다. 또한 이승훈, 권철신, 정약중, 강완숙 등이 양평·광주 일대에서 검거되고 남한산성에서는 300여 명이 순교했다. 기해박해에는 새로운 교우촌으로 성장한 미사리 구산마을의 김만집(金萬集), 김문집(金文集), 김주집(金胄集)과 그의 아들들, 병인박해 때는 김성희(金聖熙), 김차희(金次熙) 등 40여 명이 순교했고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이 순교했다.

### 금토동 청계산의 성인 서루도비교 성지

금토동에서 청계산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정일당 강씨 사당과 묘역을 지나 청계산의 여러 봉우리 중 하나인 국사봉을 만날 수 있다.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을 한발 한발 밟

아 올라가면 국사봉 못 미쳐 작고 음습한 동굴터(사진)가 있다. 그곳은 흥선 대원군 집권 당시 프랑스의 서루도비교 볼리의(1840-1866, 한국 이름 서물레) 신부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은거했던 곳이다.

동굴 입구에 성인(聖人) 서루도비교 볼리의 신부의 약력을 적은 안내판과 표석 2기가 세워져 있는 이 터는 어른 4·5명이 간신히 은거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의 동굴로 출입구가 북향이라 어둡다. 동굴 바깥은 높이 1m, 직경 320cm로서 낮고 좁은 편이고 내부는 높이 120cm, 직경 480cm, 폭 5m정도다.

1865년 5월 27일, 충청남도 내포리에 상륙해 약 3주일 후 선교를 위해 묘루니(운중동)에 도착한 신부는 흥선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 굴에 숨어 지내며 선교활동을 했다. 그러다 1866년(병인년) 2월 체포돼 3월에 새남터에서 순교했다. 성인 서루도비교 신부는 1900년 9월 10일 서울 명동 대성당에 안장됐다. 매년 9월 순교성월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이 이 성지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순교 성인의 뜻을 기린다.

가장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지속돼 수많은 순교자를 낸 박해가 병인박해다. 당시 순교한 신자는 대략 8천 명에서 1만 명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이름을 알 수 없다.

도심과 인접해 쉽게 등산로를 따라 산행할 수 있는 청계산 작은 동굴터. 물방울이 간헐적으로 똑똑 떨어지는 그곳에 '서물레'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프랑스 신부가 숨어서 쉬었을 숨결이 청계산 자락 골마다 깊게 배는 것 같다.

자료제공 | 성남문화원

도움말 | 유종준 상임연구위원

성남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조인자 기자 dudldk@hanmail.net

### 복지현장 | 수어통역센터

## 수어(手話)로 청각·언어 장애인의 귀가 된다

수어(수화)란? 이름과 지명 등 고유명사로 표현, 사물을 이해해 의사 전달하는 '손으로 표현하는 언어', 즉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의 귀가 돼주는 제1의 언어를 말한다.

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 성남시지부는 성남시 거주 농아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가정·법률·금융·의료·취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때 수어통역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문맹농아인을 위한 농수어통역사 상주, 노인난청관리 및 영상전화 상담을 실시한다.

또 일반인에게 수어 교육 및 보급을 위한 초·중·고급·회화반 과정을 '수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농아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꿔나가고 있다.

아름방송에서 수어통역사로 활동하는 김윤수 성남시지부 수어통역센터 실장은 "성남에 살고 있는 농아인은 2천~3천여 명이지만 수어통역사가 몇 명 되지 않아 항상 바쁘고 일손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농아인이 말 못하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로 인한 힘든 일이 많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9월 제11회 경기도 공무원 수어경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세열(시청 사회복지6급) 씨 같은 분이 있어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김세열 씨는 '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해 평소 남다른 애정으로 15년간 봉사활동을 실천해온, 농아들의 오랜 인연이라고.

김 실장은 "농아인이 본인 장애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제

는 농아들이 세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어 등 각종 외국어를 배운다고 전한다. 우리도 농아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힐 기회로 '사랑의 수어'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수어교실(연중 오전·오후반 운영) 747-8572

영상전화 070-7947-0388

고정자 기자 kho6488@hanmail.net





명사의 서재 | 김상일 캐슬파인 리조트(주) 사장

## “인생은 변신을 거듭하는 영화 같아”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며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김상일(61·분당구 수내동·사진) 캐슬파인 리조트(주) 사장. 경기도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의 접목을 시도해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종합무역상사 등 17년의 무역상사 생활을 뒤로하고 44세의 나이에 전 세계 남녀노소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세계적 미디어 그룹 월트디즈니 코리아에서 영화사업부 담당 사장으로 15년간 영화와 더불어 일했다. 만화영화뿐만 아니라 전 장르의 영화를 수입 배급하고, 폰·세븐데이즈·더 게임·천년학 등 20여 편의 한국영화 투자제작 배급에 참여했다.

그는 “월트디즈니(Walt Disney)가 아주 작은 아이디어로 창작한 ‘미키 마우스’가 전 세계 어린이들

에게 기쁨과 꿈을 주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리더가 어떻게 커다란 변화와 또 미래를 만들어 내는가를 체험했다”고 한다. 그 후, 리더의 선택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며 『21세기 리더의 선택』(피터 드러커 외)을 경영 필독서로 소개했다. 주로 경영 관련 서적을 즐겨 읽는 편인데,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 『혼·창·통』(이지훈)을 소개했다.

그가 영화 산업을 떠나 골프장 경영자로 있는 ‘캐슬파인 골프 클럽’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골프클럽이다. 골프와 오케스트라와의 만남을 봄·가을 두 차례 갖고, 얼마 전엔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화가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또 지역 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영화 상영을 골프장 앞 광장에서 실시하면서 광장문화도 전파하고 이를 통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친환경 골프장을 지향하면서 그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슬로우 시티 운동을 경영에 접목해 자연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그는 아직도 『삼국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읽으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한다. 김 사장의 영화와 같은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김상일 사장이 추천하는 또 다른 책

민경조 『논어 경영학』 논어에서 배우는 경영과 리더십의 요체  
심희주 기자 heejoo719@hanmail.net

### 소비자 Info

## 스마트 폰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스마트폰은 휴대전화, 전자수첩, MP3, 영상 재생, 게임 기능 등이 모두 가능한 내 손 안의 컴퓨터다. 휴대폰과 PC가 결합된 개념의 기기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특징은 근거리무선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가능하고,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기술 적용 제품이므로 아직까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올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관련 상담 총 1,452건 중 약 63.3%인 919건이 품질관련 불만이었다. 통화 품질, A/S지연, 프로그램 버그, 기타 기능 불량 및 과다수리비 청구 등이었다.

스마트폰에 하자가 발생하면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는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구입 후 10일 이내에 소비자과실 없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제품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자체 품질보증책임을 적용해 수리 가능 부품이 제한되거나 리퍼 폰 교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입 시에는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시스템도 잘 비교하고 선택해야 한다.

김경익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금융회사 X파일 증권사편(1)

## 온라인 쇼핑의 달인 아내, 하지만 펀드 쇼핑은?

얼마 전 퇴근해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짜잔”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민 통장이 있었다. 증권사에 가서 딸아이 CMA통장을 만들 때 직원이 추천해준 펀드도 함께 가입해 왔다는 것이었다. 평소에는 양말 하나 살 때도 몇 백 원이라도 아끼려고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가격비교해 보면서, 수익률 하나만 보고 덩석 가입해 오다니...

대부분의 경우가 이처럼 수익률을 중요시할 것이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바로 펀드 수수료다. 만약 펀드에 5년 정도 가입한다고 할 때 수수료가 1%짜리 펀드를 가입하면 2%짜리를 가입한 경우보다 5년간 5%의 수수료를 덜 낼 수 있다. 최소한 5%만큼은 확실히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펀드 수수료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다음 표를 보면 펀드비용에는 크게 판매수수료와 보수 두 가지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통상 최초로 펀드에 가입할 때 판매사(은행·증권사)에 내는 비용이고, 총 보수는 펀드를 운용하는 대가로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부분을 지불하는 비용이다.

펀드유형	보수					기타비용 (B)	수수료	
	운용	판매	수탁	일반	총보수(A)		선취	후취
주식	0.662	1.139	0.035	0.023	1.798	0.01	0.96	0.95
혼합주식	0.502	1.029	0.037	0.018	1.573	0.01	0.84	1.23
혼합채권	0.358	0.844	0.031	0.024	1.245	0.02	0.56	0.95
채권	0.144	0.228	0.02	0.015	0.309	0.01	0.03	2.79
단기금융	0.076	0.176	0.021	0.011	0.281	0	0.27	0
파생상품	0.297	0.515	0.021	0.013	0.656	0.02	0.56	1.39
부동산	0.28	0.175	0.056	0.03	0.543	0.99	0	0
재간접	0.533	0.975	0.03	0.018	1.55	0.01	1	0
특별자산	0.849	0.117	0.022	0.018	0.975	0.01	0	0
합계	0.343	0.601	0.027	0.017	0.951	0.01	0.85	1

(금융투자협회 7월말 기준)

또 펀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펀드종류를 나누어 표시한다. 흔히 펀드 뒤에 붙는 기호를 따라 분류하며, 내용은 다음 표를 참조하면 된다.

- A 최초가입 시 선취 판매수수료를 받는 펀드
- B 펀드환매 시 후취 판매수수료를 받는 펀드
- C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보수가 높은 펀드
- D 선취·후취 판매수수료를 모두 받는 펀드
- E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전용펀드
- W 전문가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주는 펀드랩 상품
- I 고객거래사 요건을 충족한 기관 투자자 전용펀드

일반적으로 2년 미만 단기 투자자는 클래스 C형을, 장기투자라면 A형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럼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혹은싼

지 비싼지에 대한 비교는 어떻게 할까? 금융투자협회의 펀드전자공시사이트 (<http://dis.kofia.or.kr>)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펀드전자공시사이트의 경우 판매사별 수수료까지 비교 가능하니 펀드 가입 전이나 가입 후라도 내 펀드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펀드는 온라인 쇼핑처럼 배송비를 낼 필요 없이 무료 교환이 가능하다.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펀드판매회사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펀드(계좌)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매절차나 별도 비용없이 비용이 더 저렴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회사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제도다.

금융기관에 비해 소비자는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금융소비자가 된다면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호에는 CMA 제대로 알기  
포드재무설계 재무상담사 장민수



## 퇴행성 슬관절염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박영희 교수

슬관절(무릎관절)은 인체에서 체중 부하를 많이 받는 관절 중 하나로, 슬관절에 가해지는 내외적인 자극 요소로 인해 나타나는 통증·부종·발열·굴신불리·보행장애 등의 제반 증상을 총칭해 한의학에서는 ‘슬통(膝痛)’이라 한다. 슬통은 노인들에게 기능장애

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서 55세 이상의 25%가 슬통을 경험하고, 이중 절반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50대 이상의 슬통의 대부분은 퇴행성 슬관절염에 해당되는데, 연령에 의한 변화, 직업상 반복된 운동이나 과사용 후, 외상성 무릎 손상, 비만, 감염 또는 여러 관절염(류마티스 관절염·통풍성 관절염 등)에 의해서 발병된다.

### 통증·붓기·열 등 다양한 증상 나타나

퇴행성 슬관절염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가 힘들게 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며,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프거나, 걷거나 움직이고 난 후 무릎이 붓고 열이 나거나 아프며, 심한 경우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고, 다리가 안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이 오게 된다.

한의학적 치료는 슬관절의 통증 감

소 및 퇴행성 변화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침치료는 무릎 관절의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많은 임상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무릎의 통증이 극심할 때에는 봉약침(별독요법) 등의 약침치료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퇴행성 슬관절염 초기에는 통증·붓기·열을 내리는 한약을, 슬관절염이 오래돼 시리고 뼈가 아프며 저린 증상이 있을 때에는 근육과 관절을 윤택하게 하고 기혈을 보강하는 한약을 복용하면 효과적이다. 한약의 구기자·산수유·토사자 등을 이용해서 차로 오랫동안 복용하는 것도 무릎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스트레칭, 걷기 등 가벼운 부하의 근력 강화 운동 필요

퇴행성 슬관절염의 경우, 아픈 관절에 충격을 주는 형태의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관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해주면 좋

고, 관절 주위 근육이 강화되면 무리한 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다만 관절에 과도한 충격이나 부하를 주는 운동은 좋지 않고, 가벼운 부하를 주면서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운동이 좋다. 그리고 환자 스스로 운동량을 정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후 운동을 하는 것과 운동량을 서서히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평지를 걷는 운동으로, 하루 30분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무릎의 통증이 있거나, 무릎관절의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걷는 운동을 하지 말고 무릎관절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하기를 10여 회씩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는 운동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법 외에 잔디밭 위에서 걷는 방법, 물속에서 걷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무릎관절에 충격을 최소화 주기 위함이다.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710-3700

## 주목! 이 공연

# 한·일·대만 만돌린 판타지

일 시 11. 6(토) 오후 5시  
장 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프로그램

-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세레나데 'Eine Klene Nachtmusik',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테마 음악(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 Leroy Anderson 곡들(일본 아마데이 연주팀)
- 우리 민요 '아리랑', 국내 초연되는 중국 전통민요 'Autumn Winds and Evening Rains(秋風夜雨)', 일본 전통민요 'Yagi Bushi'(한·일·대만 합주) 등



이번 연주를 주관하는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는 3차례 동경 초청연주, 2차례 오사카 국제만돌린페스티벌에 참여하고 2008년 6월엔 중국 베이징대학 백주년 기념관에서 한·중·일 합동연주를 갖는 등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국경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4년 지역의 순수 아마추어들로 구성 시작된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는 70여 명의 단원이 지역의 문화행사·복지시설 공연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건전한 연주활동으로 사랑받고 있다. 내년에는

유럽만돌린축제에도 참가할 계획이다.

만돌린은 이태리가 본고장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악기다. 아직 만돌린 학과와 클래식 만돌린 음악지도자가 없어 수준 높은 만돌린 음악을 접하기 힘든 국내에서 이번 공연은 음악 마니아들에게 또 다른 음악장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만돌린을 지도하는 이석기 선생은 만돌린 곡으로 '탄천의 봄' '탄천의 가을'을 작곡해 경기문화재단 작곡상을 수상했으며, 우리의 민요에 만돌린의 영롱한 소리를 매치해 많은 곡을 편곡한 바 있다.

조옥련 단장은 "이번 연주회에는 서울과 수도권 거주 일본인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국경을 초월한 민간인 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을 기대했다.(무료 공연)

## 건/강/게/시/판

### 60세 이상 노인 독감예방접종 하세요

성남시 주민등록 등재 60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노인을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60~64세 어르신은 10월 18일부터 보건소(분당구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접종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4일부터 동별 순회접종을 실시한다. 동 순회 접종 시 빠진 어르신은 11월 1일부터 보건소를 직접방문,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 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2~7, 중원구 729-3905~8, 분당구 729-3963~7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합니다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치매환자에게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전국 평균소득 50% 이하의 만60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치매환자 본인이 기초노령연금수급자,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 동장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치매환자, 방문보건센터·노인보건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까지 확대됐다.

연간 27만 원(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치매 약제비(약제 처방 시 진료비 포함)의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한다(치매진단서 발급 시 1만5천 원 추가). 신청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보건소 지역보건팀 | 수정구 729-3842, 중원구 729-3903, 분당구 729-3963

### 성남시민을 위한 가족 야간특별교육

오는 11월 26일(금) 오후 7시~8시 30분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구 성남시청 별관) 재활프로그램실에서 알코올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가족을 위해 열린다. '아픔과 성장(우리 가족 하나 되기)'을 주제로 김영민(한국표현예술심리치료협회) 강사가 교육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8시에는 알코올 문제 부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20대 미혼 성인들의 자조모임도 갖는다.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751-2768~9

또 다른 공연들 | 11.25(목)/ 12.23(목) 오후 2시 소망재활원

분당만돌린오케스트라 www.bundangmandolin.com 010-4933-7758



## 노인학대 신고·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 콜센터 129



# 우재의 '일터의 꿈'

김미경 | 성은학교 교사  
경기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 팀장

올 초 5월부터 중원도서관 수서정비 팀과 어린이열람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정우재 학생은 한솔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다. 자폐성 장애를 겪고 있어서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사의 지도로 교육을 받고 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입시를 위해 치열하게 내달리고 있지만 우재는 나름의 진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일터 체험을 하고 있다.

우재는 중원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화·목요일 3시간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서정비실의 새 책에 태그를 붙이고 도장을 찍는 일과 어린이열람실의 반납된 책을 정리하고 있다.

우재와 같은 자폐성 학생들은 다소 융통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규칙적이고, 정확성에 기인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어진 정리활동에 대한 업무를 잘해내고 있다. 특히 숫자에 민감한 우재의 경우 10진 분류로 이뤄진 청구기호에 맞게 책의 코드를 읽고 정리하

는 일에 흥미를 갖고 있다. 책에 태그 붙이는 일도 주어진 봉사활동 시간 내 내 요령이나 꾀도 부리지 않고 몇 백권의 작업을 해내고 있다. 봉사활동을 시작하던 5월경에는 일이 서툴고 능력이 오르지 않았으나,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머금고 정해진 일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담당자에게 인사하는 것도 어색했으나 이제는 일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귀가한다.

자폐성 장애로 인해 특히 숫자에 민감한 우재는 태그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책의 마지막 페이지 숫자를 먼저 확인하거나 봉사활동 종료 시간인 오후 5시를 1분도 틀리지 않아야 하는 등 다소 귀여운 행동들이 일반인들의 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장애를 딛고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과 당당하게 일을 수행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해 성은학교(분당구

야탑동)에 2007년부터 설치해 운영하는 경기직업전환교육지원센터(성남)는 성남 관내 11개 고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교사연수, 학부모연수, 지역사회연계정보 제공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도내 공공도서관 144개 기관에 장애인 1명씩을 채용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성남시청도 '장애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도서관 사서 보조활동을 포함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뒷받침은 우재와 같은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일 체험으로 강화해 장차 직업적 기반을 갖도록 힘을 주고 있다. 우재의 후배들과 아울러 그 가족에게는 밝고 큰 희망을 안겨주는 등대와 같은 뉴스가 됐다.

무엇보다 우재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일터 체험의 기회를 주신 중원도서관 김혜숙 관장님께 특수교육인 모두는 큰 감사를 드린다.

### 이달의 포토

만추(晩秋)의 탄천 송호창 | 분당구 구미동  
가을의 풍요로움을 그대로 담은 탄천. 자전거 마니아들이 만추(晩秋)의 하늘과 바람을 한껏 만끽하고 있다.

### 부의록(賻儀錄)

박유영 | 분당구 서현동

스터디가 있는 날이다. 모이기로 한 장소로 갔다. 뜻밖에 개울 건너 야산 아래 외딴 집 앞에 도착했다. 아직 아무도 안 온 것 같다. 신발을 벗고 방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방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지 않다. 둘러보니 짓다만, 마무리가 아직 덜 된 집이다. 장소를 잘못 알고 온 건 아닐까, 모임 구성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하려는데 때마침 핸드폰 벨이 귀청을 울린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대요, 빨리 병원으로 와요.” 꿈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날을 넘기지 못하시고 우리 곁은 떠나셨다. 슬하에 7남매를 두신 어머니의 장례식은 잠시 슬픔은 미루어두고 마치 축제 같았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들까지 우리 가족만 해도 서른 명이 넘으니 짧은 3일의 장례 기간 동안 발들이 분주했다. 대부분의 장례식 풍경이 그러하듯 마지막 밤은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내실에서 부의함을 열었다.

어쨌거나 그것도 공금이라 할 수 있으니 투명함이 우선이다. 우리는 둘러앉아 한 사람은 액수를 적고 한 사람은 봉투에 번호를 매기고 한 사람은 부의록을 적는데 한 장의 봉투 속에서 4만 천 원이 나왔다. 가슴이 뭉클했다. 3만 원도, 4만 원도 아니고 5만 원도 아닌 만 원짜리 네 장과 천 원짜리 한 장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3만 원을 넣으려니 그와 나의 심리적인

거리가 염려됐고, 5만 원을 넣으려니 고정 수입이 없는 처지이니 그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4만 원은 4라는 숫자에 대한 우리의 오랜 관념을 무시할 수 없었을 테고, 그리하여 얇은 지갑 속 빛나는 천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액수를 적고 셈을 하던 가족들은 잠깐 손을 멈추고 감사 기도를 하듯 숙연해졌다. 어떤 봉투보다도 두둑한 봉투, 빛나는 봉투, 그는 예의를 다해 이곳에 왔구나. 부의록에 그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나는 그의 이름 옆에 빨간 꽃 한 송이를 그려 넣었다.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늘 성장을 멈추는 법이 없다. 이번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그 같은 생각이 들었다. 평소 오래 불편했던 관계가 문상을 와 준 것만으로 스노우 아이스크림처럼 한 순간에 녹고 말았다. 더러는 오랫동안 빛진 마음을 훌훌 털어내고 가는 뒷모습을 보기도 했다. 보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가족사, 혹은 들키고 싶지 않은 내면의 풍경들을 지인들에게 모두 펼쳐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또한 성장통이 아닐까?

장례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관계의 시작, 관계의 재발견의 장이 아닌가 싶다. 누군가에게 혹 풀어야 할 오해나 묵직한 마음의 빛이 있다면 꼭 상대의 애사(哀事)에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고인에게 고개 숙여 묵념하는 게 어떨지...

● 독자마당 안내

독자 수필(원고지 5매 내외), 사진(성남지역 풍경·사람들, 200만 화소 이상), 이달의 독자를 모집합니다. 11월 8일(월)까지 보내주세요.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소 연락처 기재 바람).

보내실 곳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불법 사금융 피해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세요!**

- 금전을 빌릴 때도 거래상대방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 - 대부업체는 시청 생활경제과(729-2803)에서 확인 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은 꼭 챙기자. 훗날 분쟁에 대비!
-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서명·날인하자.
- 급할수록 돌아가자. 돈 빨리 빌려준다는 유혹에 조심
- 본인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유리한 조건 제시 업체 조심
-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보자.
- 허위·과장·부실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사금융 이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과 함께 극복
- 사금융 피해 및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법 통합신고센터' 국번없이 1379
  -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 국번없이 1332

시청 생활경제과 소비자지원팀 729-2802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자**

- 풍수해보험 : 정부에서 권장하고 3개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
  - 가입기간 : 연중(보통 1년, 소멸성)
  - 보험대상 : 주택(동산 포함), 비닐하우스, 세입자 동산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재난안전관리과 방재팀 729-3553  
구형 건설과 | 수정구 729-5341, 중원구 729-6341, 분당구 729-7341

**국민 참여 '재난전조정보 제보' 이벤트**

- 기간 : 10.1~11.30(2개월)
  - 분야 : 재난전조정보 제보, 재난전조정보 정책 아이디어 제안
  - 응모 :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알림판 '재난안전지킴이'에 온라인 등록
- 소방방재청 예방전략과 02-2100-5216, 시청 재난안전관리과 729-3543

**성남시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만50세 이하 시 거주 여성으로 해외 연주 경력 사유가 없는 분
  - 연습 : 주2회(월·수 10:30~13:30)
- 성남시여성합창단 010-6473-0180, 010-8501-3783

**안마시술소·골프연습장 '안전시설 완비증명'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 영업중인 스크린골프 연습장·안마시술소·권총사격장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돼 11월 11일(목)까지 강화된 기준에 의한 소방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완비증명을 필히 받아야 영업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남소방서 예방과 720-0313

**범죄피해자, 이제 국가가 직접 보살핀다**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더라도 우선 국가로부터 구조금 받을 수 있음.
  - 최대 유족 구조금 약 5400만원, 장해구조금 약 4500만원으로 확대
  - 장해10급까지 지급, 중상해구조금 신설,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 (사)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 715-0090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 선진기업복지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사기 양양 및 경쟁력 제고 위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프로그램(퇴직연금, 우의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내용 :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에 선진기업복지지원단을 구성,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에 제도 도입지원 컨설팅 실시, EAP 상담 실시
  - 기간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EAP)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복지넷 가입사업장
  - 신청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788-1560

**분당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 자격 : 합창에 관심 있는 여성
  - 연습 : 월(10:30~12:30), 수(14:00~16:00)
  - 장소 : 이매동 갈보리교회
- 분당여성합창단 010-5037-5513, 010-3369-7024

**10월은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 신고대상 :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고용 사업주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1588-0075

**한국노총 성남지역 무료 법률상담**

- 시간 : 월~금 09:00~17:00
  - 방법 : 전화, 방문, 팩스(744-8051) 인터넷(www.inochong.org)
- 한국노총 성남지역노동교육상담소 742-0606

**2010년 11·12월 시민 정보화 무료교육 일정**

기관명	구분	자격	교육기간	교육시간	접수방법
수정구청	인터넷 활용	성남시민	11.1~11.12	09:00~10:30	10.15(수) ~ 선착순 인터넷 접수 http://www.sujeong-gu.or.kr/life/life_07.asp 전신통신팀 ☎729-5072
	한글			11:00~12:30	
	스위시맥스			13:00~14:30	
	포토샵			09:00~10:30	
	한글 활용			11:00~12:30	
중원구청	엑셀	성남시민	12.1~12.24	월~금 10:00~12:00	11.11(월) ~ 선착순 중원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729-6073
	인터넷 파워포인트			월~금 13:00~15:00 월~목 18:00~20:00	
중앙도서관	실버세대를 위한 컴퓨터 왕초보	성남시민	11.2~12.24	화목 09:30~11:00	10.25(월) ~ 10.31(일) 화, 목, 목 09:00부터 수, 금, 금 09:30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 (http://ct.snlib.net) ☎729-4633
	한글2007			화목 11:30~13:00	
	엑셀 및 파워포인트			화목 16:00~17:30	
	엑셀(기초 - 고급)			화목 18:00~20:30	
	컴퓨터기초			수금 09:30~11:00	
	인터넷활용			수금 11:30~13:00	
	한글고급 및 파워포인트			수금 16:00~17:30	
수정도서관	참쉬운 엑셀	성남시민 (성인)	11.2~11.25	화~금 09:30~11:00	10.26(화) ~ 10.28(목) 선착순 인터넷 접수 (s.snlib.net) * 방문접수(실버반) ☎743-9600 (214)
	PC문제해결			화~금 11:30~13:00	
중원도서관	실버세대 PC입문	성남시민 (성인)	11.6~11.27	화~금 14:00~15:30	10.26(화) ~ 10.28(목) 09:00~18:00 선착순 온라인 접수 (jw.snlib.net) ☎752-3916
	디카사진 포토샵			토 10:00~12:30	
	포토샵(기초)			화~금 09:30~11:00	
	플래시 애니메이션			화~금 11:30~13:00	
	뉴실버세대를 위한 인터넷활용			(화~금) 14:00~15:30	
	엑셀(기초)			화~금 16:00~17:30	
	직장인을 위한 액세스			(토) 09:30~12:30	
장애인정보화협회	직장인을 위한 문서 작성 완전정복	장애인 및 가족	11.6~11.27	(토) 09:30~12:30	수시모집 ☎732-6884
	PC활용기초			3개월 (월수금 09:30~11:00)	
장애인정보화협회	인터넷	장애인 및 가족	3개월	(월수금 11:00~12:30)	수시모집 ☎732-6884
	워드지각용			(월수금 09:30~11:00)	
	엑셀지각용			(월수금 11:00~12:30)	
	멀티미디어활용			(화목 09:30~11:00)	
	파워포인트			(화목 11:00~12:30)	

※ 자세한 교육일정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남청소년교향악단 단원 모집**

- 자격 : 초·중·고 학생
  - 부문 :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등
  - 기간 : 10.31(일) 오후 3시까지
  - 접수 : 인터넷(www.syso.or.kr)
- 성남청소년교향악단 702-1114

**〈비전성남〉 무료 정기구독 안내**

- 〈비전성남〉을 보면 성남시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전화 729-2075~6  
이메일 snnews@korea.kr  
홈페이지 http://snvision.cans21.net
- 연락처 : 〈비전성남〉 편집실 729-2075~6

**2010년 11월 문화 행사 캘린더**



**수정구여성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 일 시 : 11. 2(화) 19:30~21:30
  - 장 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관람료 : 무료
-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729-5272



**성남시 시니어 여성합창단 창단연주회**

- 일 시 : 11. 5(금) 19:30
  - 장 소 : 성남시청 1층(대강당)
  - 내 용 : 한국가곡, 뮤지컬, 가요메들리, 라인댄스 등
  - 관람료 : 무료
- 성남시 시니어 여성합창단 017-277-2151(단장)



**성남일화 10월·11월 홈경기**

- 10. 30(토) 15:00 성남 vs 광주
  - 11. 3(수) 19:30 성남 vs 서울
  - 장소 : 탄천종합운동장
- 성남일화 천마축구단 709-4133



**남한산성과 성남시 둘레길 걷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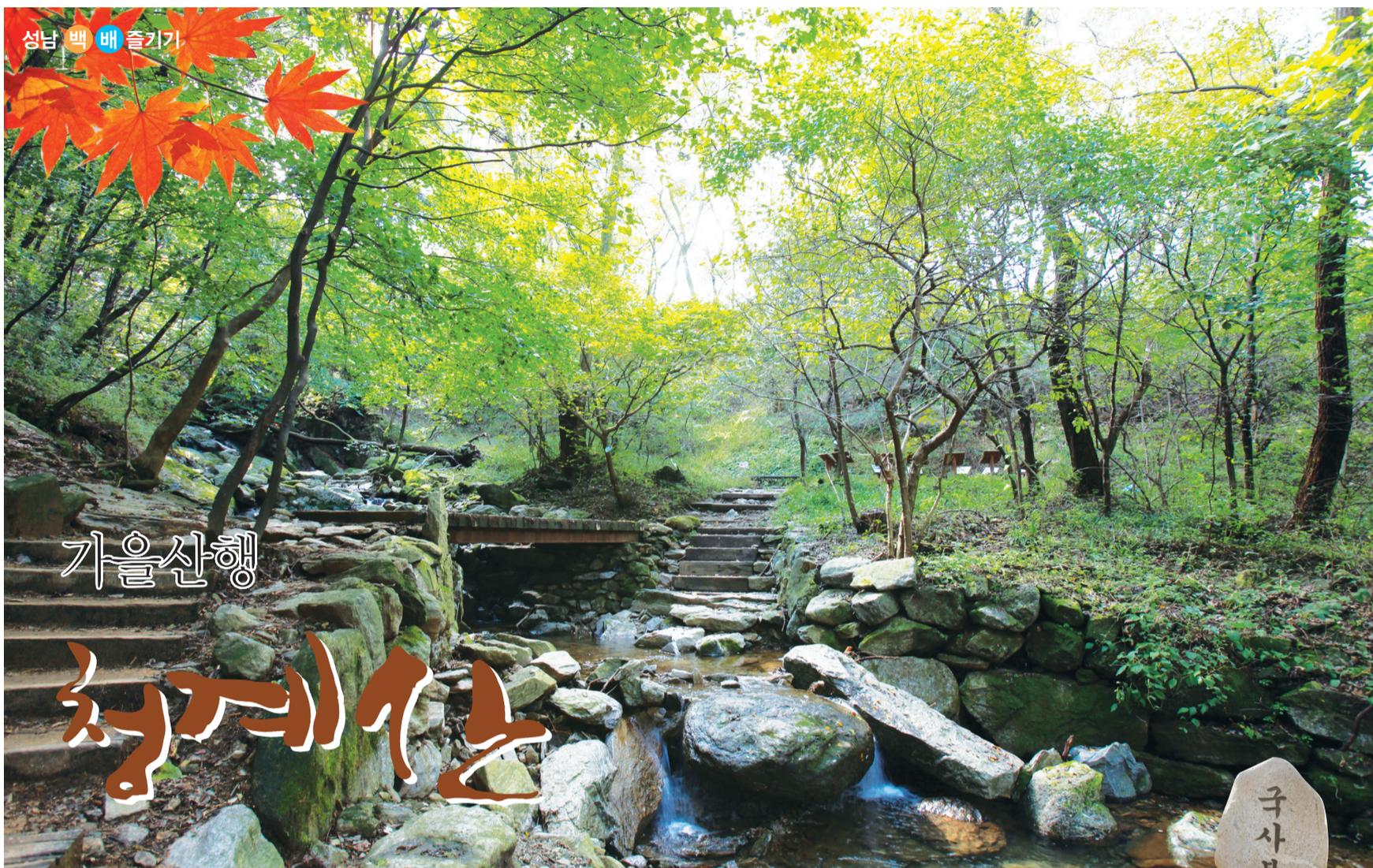
- 일시 : 10.31(일) 10:00(접수 09:00~09:50)
  - 장소 : 남한산성유원지 입구(분수대 광장)
  - 코스 : 1코스(둘레길 3구간 등 약 7km)  
2코스(둘레길 2구간 등 약 4km)
  - 신청 : 이메일(greenktw@hanmail.net), 전화, 당일 현장 접수
  - 참가비 : 무료
- 성남등산연합회 사무국 755-2577/ 010-5654-1777  
http://cafe.daum.net/greenbdmt



**앤갤러리 기획전 '시월 느린 풍경'**

- 일정 : 10.31(일)까지(장르 혼합)
  - 참여작가 : 김선두, 안미선, 임만혁, 윤정원
- 앤갤러리 070-7430-3323 www.ngallery.com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성남 백배 즐기기

가을산행

# 청계산



옛골 → 이수봉 → 국사봉 → 한국학중앙연구원

바람은 가을빛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곳곳으로 나르기에 바쁘다.

자연에게는 색색들이 물감을 날라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게 하고, 인간에게는  
센티멘털한 감성을 나른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골이 깊어진 가을이다.

지난 호에 이어 다시 한 번 청계산으로 향한다.

이번 호에는 옛골을 들머리 삼아 오르지만 청계산의 특성상 여러 갈래로 나뉘져 있는  
길 중 옛골 → 이수봉 → 국사봉 → 한국학중앙연구원을 향해 찾아든 가을 산길을 안내한다.

옛골에서 정토사(사찰)를 지나쳐 20여 분을 걷다 만난 숲은 해가 들지 않을 정도로 무성하고 그윽한 나무그늘이 드리워진 산길로 내어져 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어둔골’인 모양이다. 가을 단풍들이 거울삼아 들여다보고 있는 계곡물을 따라 작은 폭포도 지나 30여 분을 오르니 천수샘이다. 이곳에서 목을 축여야 이수봉을 향하는 갈딱고개를 무난하게 넘을 수 있다. 계단식 오르막길의 연속이다. 산책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왔는데 이제 숨이 차오른다. 오르막 계단을 올라 키가 큰 철쭉나무들이 좀 이르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들을 지나치니 **이수봉(545m)** 정상이다.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걷는다. 방금 어느 잎새인가 물들이고 왔을 바람의 향기가 느껴진다. 국사봉까지 이어지는 길엔 떡갈나무·물푸레나무·팔배나무·굴참나무들이 즐비하다. 이들 나무 중 누군가 성질 급하게 벗어놓은 낙엽으로 인해 푹신한 발걸음으로 30여 분 동안 오르막과 내리막의 리듬을 타듯 걷다 보니,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지자 청계산에 은거했다는 고려의 충신, 송산 조견(조윤·1351-1425) 선생이 멸망한 나라를 생각하던

곳이라 해 붙여졌다는 **국사봉(540m)**에 다다른다. 안양과 평촌, 저 멀리 수리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무 계단이 9부 능선으로 이어져 있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야 목적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갈 수 있다. 산행을 할 때 오르막길보다 내리막길이 더 위험하고 몸에 무리가 간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걸어야 할 길이다. 바위길이 이어져 있어 조심해야 하고, 하늘에 닿은 듯한 작각이 일게끔 늘씬하고 키 큰 나무들 사이로 호젓하고 고즈넉한 길의 아름다움에 시선을 빼앗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만났던 사람인가, 아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마치 오래전부터 인연이었던 사람인양 따라 인사를 나눈다. 산행을 하면서 느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칼칼... 졸졸... 자연이 빔어낸 냇물과 폭포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한국학중앙연구원** 입구에 도착한다. 산행일이 금요일이라면 한국학중앙연구원 투어 프로그램 ‘구름마을 산책’(문의 709-4412)에 참가해 한껏 더한 운치에 젖어

보는 것도, 운중동의 전통이 배어있는 손두부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도 가을을 보내는 서운함을 달래는 방법이 될 것 같다.

이번 산행 길 교통편 또한 모란역 5번 출구에서 11-1번 금토동 행 버스에 승차해 옛골 입구에서 하차하면 되고, 돌아오는 길은 운중동 버스정류장에서 수정·중원·분당구를 향하는 다양한 교통편이 있다.

윤현자 기자 yoonh1107@hanmail.net

